

예비 사서교사의 교육실습 경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eaching Practicum Experience of Pre-service Teacher Librarians

소 병 문 (Byoungmoon So)*

임 정 훈 (Jeonghoon Lim)**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예비 사서교사가 학교현장실습 전후에 작성한 소감문을 토대로 교육실습 경험이 이들의 교직 인식과 정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A대학교 예비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현장실습 전 소감문 79건과 실습 후 소감문 70건을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하여 분석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은 단어 빈도, 동시출현 빈도, 중심성을 중심으로 실습 전후 인식 구조를 비교하였으며, 질적 분석은 동일인의 실습 전·후 소감문을 대응시킨 67건을 대상으로 정서 표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습 전 소감문에서는 '교사', '학생', '현장실습'과 함께 '걱정', '기대' 등 정서 관련 단어가 상위 빈도를 보였으나, 실습 후에는 '학생', '교사', '수업', '학교도서관' 등 실천 경험과 관련된 단어가 상위로 올라섰다. 둘째, 중심성 분석에서는 실습 후 '수업'의 연결 및 매개 중심성이 크게 높아지고 '학생'의 매개 중심성이 두 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학교도서관'이 새롭게 핵심 키워드로 진입한 반면 '걱정'과 '기대'는 상위권에서 밀려났다. 셋째, 대응쌍 67건의 질적 분석 결과 실습 전에는 전공 지식 부족에 대한 불안과 수업 운영에 대한 두려움이 기대감과 혼재된 양가적 정서가 지배적이었으나, 실습 후에는 응답자의 79.1%(53명)가 교직에 대한 확신과 동기부여 등 긍정적 정서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실습이 예비 사서교사의 막연한 불안과 기대를 구체적인 교직 인식과 확신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됨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실습 전 수업 시연과 모의수업을 통한 사전 교육 강화, 실습협력학교 지도교사의 역할 체계화, 실습 후 성찰과 진로 상담을 연계한 사후 지도 프로그램의 마련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the school field practicum experience shapes pre-service teacher librarians' perceptions of and emotional responses to the teaching profession, based on reflective essays written before and after the practicum. Over three years (2023-2025), 79 pre-practicum and 70 post-practicum essays were collected from pre-service teacher librarians at University A and analyzed through keyword network analysis and a qualitative analysis of 67 matched pre- and post-practicum essay pairs. Three findings emerged. First, pre-practicum essays were dominated by emotion-related words such as "worry" and "expectation" alongside "teacher," "student," and "field practicum," whereas post-practicum essays foregrounded practice-related words such as "student," "teacher," "class," and "school library." Second, centrality analysis showed a sharp rise in the centrality of "class" and a more than twofold increase in the betweenness centrality of "student" after the practicum; "school library" newly emerged as a key term, while "worry" and "expectation" declined in rank. Third, the qualitative analysis showed that ambivalent pre-practicum emotions— anxiety over insufficient subject knowledge and fear of classroom management mixed with expectation— shifted to confidence and motivation for the teaching profession in 79.1% (53 of 67) of respondents after the practicum.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practicum transforms pre-service teacher librarians' vague anxiety and expectation into concrete professional confidence. The study suggests strengthening pre-practicum training through teaching demonstrations and mock classes, systematizing cooperating teachers' roles at practicum schools, and developing post-practicum programs linking reflection with career counseling.

키워드: 예비 사서교사, 학교현장실습, 교육실습, 학교도서관

Pre-service Teacher Librarian, School Field Practicum, Teaching Practicum, School Library

* 국립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문헌정보교육과 부교수, 학교도서관연구소장
(paul7493@kongju.ac.kr / ISNI 0000 0004 7783 7319) (제1저자)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mictoxic@kmu.ac.kr / ISNI 0000 0004 8339 2694)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6년 8월 17일 논문심사일자 : 2026년 8월 22일 게재확정일자 : 2026년 8월 31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7(3): 127-149, 2026.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6.37.3.127>

* Copyright © 2026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교사가 가르치는 교육 활동을 통하여 직업적 존재감을 찾는다는 명제에 큰 이견은 없을 것이다. 직업적 안정감도 일부 있겠지만 학생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과 함께 가르치는 일을 즐거워하는 것이 교직을 선택하는 많은 이유일 것이다. 교육학에서 교직을 성직관(聖職觀)으로 바라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중등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교과나 지역 전반을 고려해도 전체 평균 8:1이라는 높은 경쟁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 경쟁률은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조건에서 치러지는 제한경쟁시험이라는 점은 더욱 그렇다. 교원자격증을 소지했다고 모두가 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건 지극히 제한적이다.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1659호) 제21조(교원의 자격)는 교사를 정교사 등 7종으로 자격을 구분하며 이는 학생을 직접 대면하며 교과를 가르치느냐를 기준으로 정교사를 교수교원으로, 그 외 교사군은 비교수교원으로 나눈다. 비교수교원의 교육실습 내용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과를 가르치는 정교사와 비교할 때 수업 실습 시수, 학교 업무 실습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서교사는 교육적 역할을 분명히 밝힌 법적 근거를 둔다. 도서관법(법률 제21090호) 제40조(학교도서관의 설치) 2항 5호는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을 주요한 교육적 업무로 정했으며 학교도서관진흥법(법률 제18547호) 제2조(정의) 4항은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사서교사로

정의하였다. 예비 사서교사는 독서교육과 정보 활용의 교육을 교육실습을 통하여 배우게 된다.

교육실습은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인 동시에, 예비교사가 임용 이전에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직접 만나 교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이다. 또한 교육실습은 예비교사가 대학에서 학습한 이론적 지식과 학교 현장의 실제 사이의 격차를 경험하며 교사로서의 교육관을 형성하는 첫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임정훈 외, 2023). 특히 예비 사서교사에게 교육실습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사서교사는 주로 일반대학의 문헌정보학과와 교직과정을 통해 양성되기 때문에, 교육실습은 학교도서관 분야의 이론과 현장의 격차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적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김성준, 2011a). 실제로 교육실습에 참여한 예비 사서교사는 실습 과정을 통해 강한 만족감과 자기 성장의 욕구를 느끼고, 학교의 조직문화를 이해하며, 대학에서 배운 이론적 내용을 현장에 접목하는 계기를 얻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권선영, 박장순, 2014).

이처럼 교육실습이 예비 사서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교직 정체성 형성에 핵심적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간의 연구는 교육실습의 영향요인 분석과 실습 프로그램 개발(김성준, 2011a; 2011b), 실습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권선영, 박장순, 2014), 현행 교육실습에 대한 인식 조사와 제도 개선 제안(임정훈 외, 2023) 등으로 이어져 왔으나, 대부분 교육실습을 다녀온 후의 경험과 인식을 토대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예비 사서교사가 교육실습을 앞

두고 어떤 기대와 불안을 안고 있었는지, 그리고 실습 경험이 그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실습 전후의 비교를 통해 추적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저경력 사서교사가 준비되지 않은 채 학교 현장에 배치될 경우 학교생활 적응에 많은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이승민, 2020)을 고려하면, 교육실습을 전후한 예비 사서교사의 인식과 정서 변화를 이해하는 일은 교육실습 운영의 개선뿐 아니라 사서교사 양성과정 전반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대학교의 예비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학교현장실습 전·후 소감문을 수집하고,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과 질적 분석을 혼합 적용하여 학교현장실습 경험에 따른 교직 인식의 변화 양상을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실습 전과 후의 소감문 전체를 대상으로 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집단 수준의 인식 구조 변화를 파악하고, 동일인의 실습 전·후 소감문 대응쌍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개인 수준의 정서 표현 변화를 추적한다. 이를 통해 교육실습이 예비 사서교사의 교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사서교사 교육실습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교육실습의 이해

2.1 교육실습

교육실습은 예비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현장 교사의 지도 아래 교육 전반에 관한 실습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교사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교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체득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육부의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서는 교직과목을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으로 구분하고, 교직과목 이수 기준과 내용 구성을 <표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26, 70).

교육실습은 <표 2>와 같이 학교현장실습과 교육봉사활동으로 구분되며, 두 영역을 합하여 4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양성기관마다 차이는 있으나 통상 교육실습은 4주 내외의 학교현장실습을 의미한다.

교육실습의 내용은 교원양성기관이나 전공 교과, 해당 실습 학교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습지도, 학습경영, 생활지도, 행정실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습지도 실습은 교사의 수업 참관과 수업 시연, 학습과정안 작성, 수업을 위한 학습자료 준비 및 제작, 평가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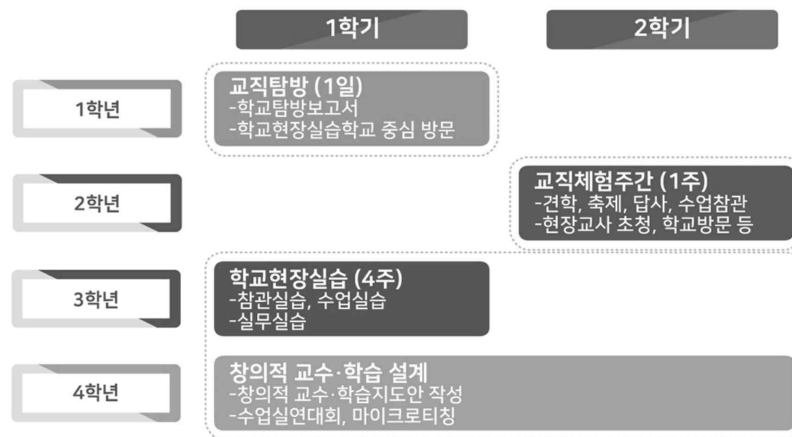
<표 1> 교직과목의 영역별 구성

입학기준	교직과목	이수학점	내용 구성
2024 학년도입 학자이후	교직이론	12학점, 6과목 이상	일선 교육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교직이론 영역(교과목명 일치)
	교직소양	6학점 이상	교직실무(1~2학점),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디지털 교육(1~2학점, 인공지능 교육 포함) ※ 단, 부칙(제2023-14호)에 따라 시행 당시('23.3.29)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
	교육실습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수업실습, 참관실습, 실무실습 등), 교육봉사활동 2학점 (P/F제 가능)이상 포함 가능

〈표 2〉 교육실습 영역

구분	내용 구성
① 학교현장실습	■ 대학에서 학교현장실습 이론교육(사전교육 등)을 이수한 후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한다. 단, 천재지변, 감염병 등의 상황 시, 교육부의 안내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의 장 또는 실습협력학교의 장이 간접으로 운영할 수 있다(교원양성기관과 실습협력학교의 협조 필요). ※ 학교현장실습 학점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라 P/F로 운영가능 ■ 대학의 장은 선정된 협력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학교현장실습계획을 수립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한다. 1. 참관·수업실습: 교과(군)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참관을 포함 2. 실무실습: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종의 직무 및 수업, 학생평가 실무를 포함 3. 학교현장실습의 구체적 실습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 권장
② 교육봉사활동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지도, 방과후교사, 초등돌봄교실, 늘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학생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교육봉사를 실시하며,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 중등 예비교원의 경우,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진로연계교육(중학교 자유학기제 및 진로연계학기 등)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봉사활동 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 최소 30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인정, 졸업 시까지 일정 시간 이수

* 출처: 교육부(2026, 75)



〈그림 1〉 A대학교 사범대학 학교현장실습 체계

* 출처: 국립공주대학교(발행년불명)

법 등을 포함한다. 학급경영 실습은 학급 조·종례 참관, 학급 경영 계획, 창의적 체험활동, 학급 환경 구성, 학급의 사무처리 등으로 구성되며, 생활지도 실습은 교내외 생활 지도, 진로지도, 상담 활동 등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행정

실무 실습은 출석부 및 학급물품 관리, 각종 회의 참관, 학교의 사무 분장업무, 공문 처리 업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A대학교의 교원양성과정은 〈그림 1〉과 같이 특정 학년의 단기 실습에 국한하지 않고 학년별 단계적 체계로 확

대하여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2.2 사서교사의 교육실습

사서교사의 교육실습은 교과 교사의 교육실습과 몇 가지 구분되는 점이 있다. 우선 양성 경로의 차이이다. 사서교사의 양성은 사범대학보다 주로 일반대학 문헌정보학과와 교직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사서교사를 위한 전문화된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어렵고, 그만큼 교육실습이 예비 사서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역할 인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다음으로 실습 내용의 차이이다. 사서교사의 교육실습은 교직 전반의 실무실습뿐만 아니라 학교도서관 경영, 정보자료 관리 및 제공,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특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는 사서교사의 학교현장실습 지원(협력)학교

선정 조건을 '도서관이 있는 학교'로 명시하여 학교도서관에서의 실질적 교육 경험을 전제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161호). 교육실습은 예비 사서교사가 학교도서관 분야의 이론과 현장의 격차를 직접 확인하고 실무 역량을 점검함으로써 사서교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역할 갈등을 극복하는 계기가 된다(김성준, 2011a).

이와 함께 김성준(2011b)은 사서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현장 실무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예비 사서교사를 위한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연구는 교육실습의 영역을 학교도서관 경영, 정보관리 및 제공, 학교도서관 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실습을 거친 현장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영역별 실습 내용의 중요성을 조사하여 <표 3>과 같은 주차별 교육실습 내용과 요소를 제시하였다.

<표 3> 교육실습의 내용과 과정

주차	과정	내용 구성		
		학교도서관 경영	정보관리 및 제공	학교도서관 교육
1주차	관찰 실습	• 학교도서관 소개 • 학교도서관의 사명과 역할 • 연간 경영내용 • 사서교사의 역할과 전문성 • 학교도서관 운영협의체	• 장서관리의 개요 • 정보시스템의 이해	• 교육환경 분석 • 수업참관
2주차	참가 실습	• 학교 교육과정과 교육활동 • 학생에 대한 이해 • 예산계획 및 집행 • 자원봉사자 조직과 운영	• 장서관리의 실제 • 정보시스템 실습 1(분류, 목록) • 정보시스템 실습 2(기타 기능)	• 교육계획 수립 •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재연구 • 정보활용교육 수업설계
3~4주차	수업 실습	• 학교 구성원과의 협력 • 경영계획 수립	• 정보봉사의 실제 • 참고정보원 및 교과학습 지원	• 독서행사 기획 • 독서교육 수업설계
5주차	정리 및 평가	• 종합정리 및 평가	• 종합정리 및 평가	• 정보활용교육 수업실습 • 독서교육 수업실습 • 종합정리 및 평가

* 출처: 김성준(2011b, 196)

2.3 선행연구 분석

이 연구의 관심은 학교현장실습을 전후하여 예비 사서교사의 교직에 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탐구하는 데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사서교사의 양성 환경에 관한 연구, 사서교사의 교육실습에 관한 연구, 그리고 교사교육 분야의 실습 전후 변화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사서교사의 양성과 배치를 둘러싼 환경은 학교현장실습 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강봉숙과 박주현(2019)은 개정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 이후 사서교사 수요가 크게 늘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양성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사서교사 양성 중장기 계획의 수립을 제안하였다. 신규 배치가 확대될수록 양성과정의 질, 특히 현장성 있는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실제로 이승민(2020)은 저경력 사서교사가 도서관활용수업에서 실천적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보여주었으며, 임정훈과 소병문(2023)은 저경력 사서교사들이 수업 관련 전문성 영역에서 높은 교육적 요구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양성과정 단계에서 학교 현장을 경험하는 교육실습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사서교사의 교육실습을 직접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김성준(2011a)은 사서교사의 교육실습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하여 실습프로그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밝히고, 교육실습이 사서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 김성준(2011b)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사서교사 전문성 기준을 토대로 앞 절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비 사서교사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이 두 연구는 사서교사의 학교현장실습을 최초로 연구주제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이후 유사한 주제의 후속 연구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이후의 연구는 대개 예비 사서교사의 경험과 인식을 대상으로 한다. 권선영과 박장순(2014)은 예비 사서교사의 교육실습 과정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하여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에 대한 인식, 진로설계 전략, 자기성장의 욕구, 조직문화 이해와 커뮤니케이션 관계, 현실 인식의 측면에서 교육실습 경험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임정훈 외(2023)는 사범대학생, 교직과정 이수자, 교육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현행 교육실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예비 사서교사들이 교육실습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마주칠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다고 인식함을 확인하고, 현장실습 기간의 확대, 현장교사와의 관계 유지,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교사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실습을 전후한 예비교사의 인식과 역량 변화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엄미리와 엄준용(2009)은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실습 전후 예비교사의 역량중요도와 역량 수준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관찰·면담·반성저널쓰기 등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실습에 따른 변화를 세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정혜영과 김미진(2015)은 은유 분석을 통해 학교현장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예비유아교사들이 실습을 ‘힘들지만 보람 있는 것’, ‘두렵고 걱정되는 것’, ‘새로운 경험’, ‘즐거운 것’ 등으로 인식함을 확인하였는

데, 이는 실습을 앞둔 예비교사의 인식에 긍정적 기대와 부정적 우려가 공존함을 시사한다. 또한 김훈희와 권충훈(2018)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표된 예비교사 교육 관련 논문 1,106편의 제목을 언어네트워크 분석으로 검토한 결과에서 '교육실습'은 상위 출현 핵심어로 나타나, 교육실습이 예비교사 교육 연구의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로 다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검토를 종합하면, 사서교사 분야의 교육실습 연구는 실습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습 이후의 인식 조사에 초점을 두어 왔으며, 교사 교육 일반 분야에서 축적되어 온 실습 전후 비교 연구는 아직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존의 전후 비교 연구 또한 주로 설문조사에 기반하고 있어 예비교사가 자신의 언어로 기술한 정서와 인식의 변화를 포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3년에 걸쳐 수집한 학교현장실습 전과 후의 소감문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과 질적 분석으로 병행 분석함으로써, 실습 전후의 비교를 통해 예비 사서교사의 인식 구조와 정서의 변화를 추적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3. 연구의 설계와 진행

3.1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이 연구는 예비 사서교사의 학교현장실습 전과 후 교직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수집의 범위를 교육실습 이전 시점까지 확대하여, 실습 전과 후의 소감문을 함께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학교현장실습을 다녀온 A대학교 예비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그림 2>와 같이 온라인 도구인 패들릿(Padlet)을 활용해 교육실습에 대한 소감과 정서 상태를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A대학교의 교육실습은 학부 3학년을 대상으로 5월 한 달 동안 실시되며, 데이터 수집은 교육실습 전인 4월과 교육실습 후인 6월에 이루어졌다. 특히 교육실습 전후의 인식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익명이 보장된 식별자(별명)를 사용해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수집 시에는 연구 목적과 활용 범위를 안내하고 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교육실습 전 소감문 79건, 교육실습 후 소감문 70건이다. 이 가운데 동일한 식별자로 실습 전과 후에 모두 소감문을 작성한 경우, 같은 사람이 작성한 실습 전·후의 소감문 두 편을 하나의 쌍으로 연결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이를 '대응쌍'이라 한다. 어느 한 시점에만 소감문을 작성해 쌍을 이룰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67건의 대응쌍이 도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수집된 소감문 데이터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전처리 과정을 거쳐 분석에 활용되었다. 먼저 3년간 수집된 텍스트 데이터를 대상으로 R 환경에서 MeCab(mecab-ko)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하여 단어(명사)를 추출하고,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불용어 처리와 용어 통일의 과정을 수행하였다. 일차적으로 특수문자나 단음절, 접속사 등을 제거하였으며, '교생실습', '교직실습', '교육실습' 등의 용어는 '현장실습'으로 통일하였다. 또한 '공공 도서관', '학교 도서관' 등 복합명사의 경우에는 단일명사로 처리하



〈그림 2〉패들릿을 통한 소감문 수집 예시

〈표 4〉소감문 수집 현황

	집단 비교		개인 비교	
	교육실습 전	교육실습 후	교육실습 전·후 대응쌍	
2023년	29건	19건	19건	
2024년	29건	29건	29건	
2025년	21건	22건	19건	
합계	79건	70건	67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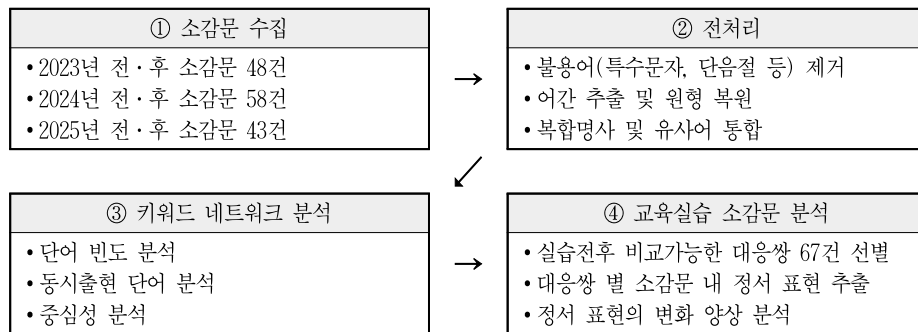
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교육실습 전 소감문에서 1,151개, 교육실습 후 소감문에서 1,340개의 서로 다른 단어가 추출되었다.

구축된 소감문 데이터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과 질적 분석의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전처리를 거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되, 수집 연도와 상관 없이 교육실습 전과 후의 소감문을 분리해 실습 전후의 인식 구조를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질적 분석은 식별자를 통해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실습 전·후 대응쌍의 소감문 원문을 대상으로 정서 표현의 변화 양상을 분석

하였다. 연구의 전체 흐름은 〈그림 3〉과 같다.

3.2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의 기법을 텍스트 분석에 적용한 방법으로, 텍스트 내 단어 간의 동시출현 관계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개념 간의 구조적 관계와 의미 연결망을 시각화하는 분석 기법이다.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노드(node)와 링크(link)로 구성되는데, 노드는 특정 개체(키워드 등)



〈그림 3〉 연구 절차

를, 링크는 개체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네트워크 분석은 텍스트에 포함된 개념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이들의 연관성과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이수상, 2014).

본 연구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예비 사서교사의 교육실습 소감문에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들 간의 동시출현 빈도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이때 동시출현 단어 분석은 한 문장에서 두 개의 단어가 동시에 출현하면 이 두 단어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텍스트 안에서 나타나는 동시출현 빈도를 활용하면 단어 간의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중심성 척도를 활용하여 주요 단어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중심성 지표에는 연결(degree), 매개(betweenness), 근접(closeness), 위세(eigenvector) 중심성 등이 있으며, 본 연구는 소감문에 나타난 핵심 개념과 개념 간의 연결 구조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단어가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핵심적 위치를 보여주는 연결 중심성과 개념

간 연결을 매개하는 역할을 보여주는 매개 중심성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결 중심성은 특정 단어가 주변의 다른 단어들과 얼마나 빈번하게 연결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해당 단어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매개 중심성은 특정 단어가 다른 단어들 사이를 중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높은 매개 중심성을 보이는 단어는 의미나 개념을 구성할 때 다른 용어들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곽기영, 2019).

본 연구는 학교현장실습 전과 후의 소감문 각각에 대해 동시출현 빈도를 바탕으로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중심성 분석을 통해 핵심 단어를 도출한 뒤 이를 네트워크 지도로 시각화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현장실습을 전후한 예비 사서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인식 변화와 주요 개념 간 관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3.3 질적 분석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예비 사서교사 집단의 교육실습 전후 경험을 분석했다면, 개인별

교육실습 전후의 소감문을 대응쌍으로 형성해 경험과 정서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동일한 물로 식별 가능한 교육실습 전과 후 소감문을 선별하고 개인을 독립 표본으로 설정해 교육실

습 전후의 감정 표현을 비교하였다. 교육실습 소감문을 대상으로 대응쌍 설정이 가능한 교육실습생 A의 감정 표현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는 과정의 예시는 <표 5>와 같다.

<표 5> 교육실습생 A의 소감문 분석 예시

식별자: 2023-05		
	교육실습 전	교육실습 후
원본 소감문 (a)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이곳에 입학한 것이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3학년이 되어 교생 실습을 가게 되는 것이 ①아직까지 실감되지 않는다. 교생실습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는 있지만 아직 내가 교사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②확신도 사실 없는 것 같다. 특히 수업에 대한 것이 유달리 어렵게 느껴지는데 아직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이 교생실습이 ③조금 두려워지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다. 지금은 이 감정을 선배들께 열심히 물어보고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조금씩 ④기대감으로 바뀌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학생 시절 교생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굉장한 어른스럽고 전문가처럼 느껴졌었는데 내가 만나는 학생들도 나를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교생실습 가기 전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수업을 개발하고 전공 과목 공부 또한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이 나의 수업을 잘 따라줄지, 나는 수업을 잘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가 ⑤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기대하면서 교생실습을 기다리고싶다! 또 다녀와서는 어떤 느낌을 느꼈을지, 의미있는 시간이 있는지, 재밌었을지, 아님 힘들었을지 내가 이 직업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느꼈을지 등등이 ⑥궁금하다. 여러 모로 교생 실습은 나의 진로를 결정하는데에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아 ④기대가 된다.	교육실습을 나가기 전에는 과연 내가 교사에 맞는 사람일지, ①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특히, 전공 지식에 ①아직 자신감이 없는 상태였고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을지도 ①걱정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이 무색하게 교생실습을 다녀온 기간은 ②너무 즐겁고 ③보람찼던 기간, 절대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걱정되었던 수업은 지도교사께서 수업을 너무 잘 하시는 분이셔서 참관을 하며 노하우를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열심히 이론에 대하여 배우고 교생을 나왔지만 직접 학생들과 진행하는 수업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거나 설명을 버벅거리는 등 여러 ④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동료 교생분들과 지도교사님의 피드백과 응원을 받고 수정을 거듭하여 수업을 설계한 대로 ⑤성공하게 되었을 때 성취감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또, 직접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생각보다 더 학생들에게 ⑥알려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먼저 다가와 주고 지나가면 인사해 주고 했던 것들, 또 아이들과의 상담,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잠깐 만나서 얘기했던 것, 간식같은 걸 쥐어주면 환하게 좋아하던 모습들.. 걱정과는 달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다가와줘서 ⑦정서적인 교감을 많이 하고 돌아 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가 “아, 이래서 내가 교사를 하고 싶었지.”라고 다시 한 번 ⑥깨닫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동료 교생선생님들과 나누었던 추억, 마지막 날까지 다같이 울고 웃었던 기억들은 제가 임용고시를 보기 위해 ⑨공부할 때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너무 ③보람찼던 기억이었습니다.
경험 (b)	교사로서의 전문성 부족을 자각하며 특히 수업 운영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느낌. 선배들의 조언과 스스로의 다짐을 통해 불안을 기대감으로 바꾸려 노력함. 교사로서 자신의 진로를 확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교육실습을 기대함.	‘첫 수업에서의 시행착오(시간 부족, 설명 버벅거림)를 겪었으나, 피드백을 반영해 수업을 성공시키며 가르치는 즐거움을 발견함. 적극적으로 다가와 준 학생들과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교사가 되고 싶었던 초심을 회복하고, 임용 공부를 위한 강력한 동기부여를 얻음.
정서 표현 (c)	①비실감, ②불확신, ③두려움, ④기대감, ⑤걱정, ⑥궁금	①부담감(걱정), ②즐거움, ③보람, ④당혹감, ⑤성취감, ⑥깨달음, ⑦행복, ⑧고마움, ⑧확신, ⑨원동력

예비 사서교사의 소감문 분석 과정은 <표 5>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소감문 전문을 대상으로 교육실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서 표현 구(句)를 선별하고 이를 맥락을 고려해 '경험'(<표 5>의 ⑤)으로 요약하였다. 요약된 '경험' 내용을 참고해 개인별 교육실습 경험을 대표할 수 있는 '정서 표현'(<표 5>의 ⑥)으로 다시 정리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예비 교사 2023-05는 교육실습 전 교사로서의 전문성 부족, 수업 운영에 대한 공포(부담)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느꼈으나 이를 의도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기대감, 동기 확신 등으로 극복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교육실습 기간에 초반 수업에서의 실수 등으로 곤란함을 겪었지만 가르치는 즐거움과 학생들과의 정서적 관계를 통해 실습 전 부정적 정서를 극복하고 교직에 대한 동기를 회복하는 긍정적 정서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일인에 대해 대응쌍을 형성한 소감문에서 '경험'(<표 5>-⑤)을 근거로 분석한 '정서 표현'(<표 5>-⑥) 결과는 연구자 2인이 교차 검토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참고해 수정 보완하였다.

4. 분석 결과

4.1 빈도분석

먼저 예비 사서교사들의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단어 출현 빈도를 분석하였다. <표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실습 전 소감문에서는 '교사', '학생', '현장실습', '생각', '교생' 등의 단어가 높은 빈도를 보

였으며, 이 가운데 '걱정', '기대'와 같은 정서적인 반응과 관련된 단어가 상위권에 포함되었다.

반면 실습 후 소감문에서는 '학생', '교사', '수업', '현장실습', '학교도서관', '교육', '활동' 등 학교현장실습 과정의 실천 경험과 관련된 단어들이 높은 빈도를 보였다. 실습 전 7위였던 '걱정'은 실습 후 12위로 하락하였고 '기대'는 상위 20위 안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수업', '교육', '준비', '활동' 등 교육활동 관련 단어들이 상위에 올랐다.

연도별로 나누어 보아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났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모두 실습 전에는 '기대', '걱정' 등 정서 관련 단어가 상위에 위치하였으나, 실습 후에는 교육활동과 연관된 단어들이 상위에 등장하였다.

또한 실습 전에는 '교사'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반면 실습 후에는 '학생'이 가장 많이 언급되어, 최상위 빈도어가 '교사'에서 '학생'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예비 사서교사들의 학교현장실습 전 후 소감문에서 단어 간 관계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동시출현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7>은 실습 전과 후 각각의 소감문에서 상위 20개의 단어 쌍과 그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실습 전 후 모두에서 '교사-학생', '학생-현장실습', '교사-현장실습' 등의 단어 쌍이 공통적으로 상위에 위치하였다. 그러나 상위 20개 단어 쌍 가운데 실습 전후에 공통으로 나타난 쌍은 9개에 그쳐, 절반 이상이 교체되는 뚜렷한 구성 변화가 있었다. 실습 전에는 '걱정-학생', '걱정-교사', '걱정-현장실습', '걱정-생각', '걱정-수업', '교사-기대', '기대-학생' 등 '걱정'과 '기대'를 포함한 단어 쌍 7개와 '교생'을 포함한 단어 쌍 4개

〈표 6〉 단어 빈도 분석

교육실습 전			교육실습 후		
순	단어	빈도수	순	단어	빈도수
1	교사	311	1	학생	492
2	학생	230	2	교사	446
3	현장실습	216	3	수업	446
4	생각	197	4	현장실습	250
5	교생	141	5	생각	208
6	수업	140	6	학교도서관	180
7	걱정	115	7	시간	128
8	시간	81	8	교생	89
9	경험	69	9	교육	89
10	기대	68	10	진행	87
11	마음	53	11	경험	86
12	학교도서관	49	12	걱정	65
13	교육	48	13	준비	60
14	학년	48	14	행사	49
15	현장	39	15	활동	49
16	고민	35	16	고민	45
17	이번	35	17	기억	44
18	준비	34	18	마음	41
19	기회	33	19	이야기	41
20	부족	32	20	현장	41

〈표 7〉 동시 출현 빈도

교육실습 전			교육실습 후		
순	단어 쌍	빈도	순	단어 쌍	빈도
1	교사-학생	65	1	교사-학생	68
2	학생-현장실습	64	2	학생-현장실습	64
3	교사-현장실습	62	3	교사-현장실습	64
4	생각-학생	61	4	생각-학생	64
5	교사-생각	60	5	수업-학생	63
6	생각-현장실습	58	6	교사-생각	63
7	걱정-학생	53	7	교사-수업	62
8	걱정-교사	52	8	생각-현장실습	60
9	교생-학생	52	9	수업-현장실습	59
10	걱정-현장실습	51	10	생각-수업	59
11	걱정-생각	51	11	시간-학생	53
12	교사-교생	50	12	교사-시간	52
13	수업-학생	47	13	시간-현장실습	50
14	수업-현장실습	45	14	수업-시간	49
15	교생-현장실습	45	15	생각-시간	48
16	교사-수업	45	16	학교도서관-학생	47
17	교생-생각	45	17	교사-학교도서관	47
18	교사-기대	42	18	학교도서관-현장실습	46
19	기대-학생	42	19	생각-학교도서관	43
20	걱정-수업	41	20	수업-학교도서관	42

가 상위 20위 안에 있었으나, 실습 후에는 이들 단어 쌍이 모두 상위권에서 사라졌다. 대신 '수업-학생'(13위→5위), '교사-수업'(16위→7위) 등 '수업'을 포함한 단어 쌍의 순위가 상승하였고, '시간'을 포함한 단어 쌍 5개(11~15위)와 '학교도서관-학생', '교사-학교도서관', '수업-학교도서관' 등 '학교도서관'을 포함한 단어 쌍 5개(16~20위)가 상위 20위 안에 새롭게 등장하였다.

4.2 중심성 분석

사전 소감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키워드 네트워크의 중심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분석 결과 연결 중심성이 높은 단어는 '교사', '학생', '현장실습', '생각', '걱정'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습 전 예비 사서교사들의 사고가 교사와 학생, 그리고 현장실습 자체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해당 단어들은 <표 8>의 네트워크 지도에서 중

심부에 위치하며 네트워크 내 다른 단어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매개 중심성은 '교사', '학생', '현장실습', '생각' 순으로 나타나 연결 중심성 상위 단어들과 일치하였으며, '걱정'과 '교생'이 낮은 수준의 매개 중심성을 보였다. 반면 '기대', '수업', '시간', '경험', '마음', '부족' 등 나머지 6개 단어는 매개 중심성이 0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단어들이 중심 단어들과 연결되어 있더라도 다른 단어들 사이를 잇는 경로에는 위치하지 않음을 뜻하며, 제한된 맥락에서 사용되어 개념 간 연결을 매개하는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후 소감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키워드 네트워크의 중심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연결 중심성이 가장 높은 단어는 '학생', '교사', '수업', '현장실습', '생각' 순으로 나타났다. 실습 전과 유사하게 '학생'과 '교사'가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지만, '수업'의 연결 중심성이 크게 높아지며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였다. 해당 단어

<표 8> 사전 데이터 중심성 분석 결과

순	키워드	연결	매개	네트워크 지도
1	교사	30	23.08	
2	학생	29	20.42	
3	현장실습	26	10.25	
4	생각	22	3.25	
5	걱정	20	1.50	
6	교생	18	0.5	
7	기대	16	0.00	
8	수업	15	0.00	
9	시간	15	0.00	
10	경험	12	0.00	
11	마음	10	0.00	
12	부족	8	0.00	

〈표 9〉 사후 데이터 중심성 분석 결과

순	키워드	연결	매개	네트워크 지도
1	학생	30	42.93	
2	교사	28	13.93	
3	수업	26	7.93	
4	현장실습	24	4.60	
5	생각	24	4.60	
6	시간	18	1.00	
7	학교도서관	12	0.04	
8	교생	12	0.00	
9	진행	12	0.00	
10	경험	12	0.00	
11	교육	12	0.00	
12	걱정	10	0.00	

들은 〈표 9〉의 네트워크 지도에서 중심부에 위치하며 네트워크 내 다른 단어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매개 중심성은 ‘학생’, ‘교사’, ‘수업’, ‘현장실습’, ‘생각’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의 매개 중심성은 실습 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상승하여 네트워크에서 다른 개념들을 연결하는 중심 역할이 크게 강화되었으며, ‘수업’ 역시 크게 상승하여 개념 간 연결을 매개하는 기능을 새로 갖게 되었다. 이는 예비 사서교사들이 실습을 통해 ‘학생’과 ‘수업’을 중심으로 교직 관련 개념들을 연관시키며 인식을 재구성하였음을 시사한다.

또한 사전 분석에서 중심성 상위 12개 단어에 포함되지 않았던 ‘학교도서관’이 사후에는 새롭게 진입하였으며, 네트워크 지도에서도 ‘학생’, ‘수업’, ‘교사’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이는 학교현장실습을 통한 학교도서관에서의 실제 경험이 인식 구조에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실습 전 연결 중심성 5위였던 ‘걱정’은 12

위로 하락하고 매개 중심성도 0으로 나타났으며, ‘기대’는 상위 12개 단어에서 사라졌다. 이는 실습 전 두드러졌던 정서 관련 단어들이 실습 후 인식 구조의 중심에서 밀려났음을 보여준다.

4.3 교육실습 소감문의 정서적 표현 변화 분석

교육실습 전·후 소감문에 대한 분석은 〈표 5〉와 같은 과정을 거쳤으며, 동일인을 확인할 수 있는 소감문의 대응쌍 67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2023년도 19건의 소감문 전체를 대상으로 〈표 10〉과 같이 정서 표현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하고 정서 표현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예비 사서교사의 교육실습 전후에 작성한 소감문을 정서 표현의 변화를 중심으로 요약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24년, 25년 소감문을 분석해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0〉 2023학년도 교육실습생의 소감문 분석 과정

	교육실습 전	교육실습 후	정서 표현의 변화
23-01	교생을 나갈 나이가 됐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고 전공지식 부족으로 걱정되지만, 새로운 경험과 학생들과의 만남을 기대함. 좋은 선생님이 기억되고 싶고, 교사가 적성에 맞는 지 확신을 얻고자 함.	학생들과 라포 형성에 노력해 마음을 여는 모습에 뿌듯함. 첫 수업의 좌절을 상호작용 전략·포스트잇 활용 등으로 극복하며 성장을 실감. 교사라는 직업 선택에 확신을 얻고 임용 준비를 다짐.	걱정·기대가 혼재했으나 초기 좌절을 극복하고 보람·확신으로 전환
2	걱정이 앞서고 스스로에 대한 회의감이 큼. 교사 자격이 있는지 확신이 없으며, 무사평탄하게 마치기만을 바람. 실습을 통해 진로의 갈피를 잡기를 희망.	실습이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무를 경험했으며, 수업 경험을 통해 자신감·수업에 대한 열의·학생에 대한 애정을 얻음. 교사로서의 의식이 고취된 뜻깊은 시간.	회의·불안이 우세하였으나 자신감·애정·의미 부여로 뚜렷한 전환
3	두려움 반 설렘 반. 부모의 권유로 시작한 진로라 사명감을 이제 막 느끼는 중이며, 자신이 어리고 부족하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커짐.	매우 의미 있는 시간. 도서관이 지식 성장을 돕는 공간임을 깨닫고 학생들을 돕는 데 큰 보람을 느낌. 사서교사로서의 열정과 책임감이 강해짐.	두려움·설렘의 혼재에서 보람·열정·책임감으로 전환
4	오랜 꿈이었기에 설레지만 전공지식이 충분하지 두려움도 있음. 자신감을 가지려 노력 중이며,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 전문을 넓힐 기회로 기대함.	걱정이 무색할 만큼 학생들이 먼저 반겨줘 고마움을 느낌. 에듀테크 활용 수업 등 많은 것을 배웠고, 부족함을 느낀 만큼 더 노력하는 교사가 되겠다는 다짐이 커짐.	설렘·불안감이 뒤섞인 가운데 고마움·성장 의지로 전환
5	교사로서의 전문성 부족을 자각하며 특히 수업 운영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느낌. 선배들의 조언과 스스로의 다짐을 통해 불안을 기대감으로 바꾸려 노력함. 교사로서 자신의 진로를 확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교육실습을 기대함.	‘첫 수업에서의 시행착오(시간 부족, 설명 버벅거림)’를 겪었으나, 피드백을 반영해 수업을 성공 시키며 가르치는 즐거움을 발견함. 적극적으로 다가와 준 학생들과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교사가 되고 싶었던 초심을 회복하고, 임용 공부를 위한 강력한 동기부여를 얻음.	두려움·기대의 혼재 가운데 성취감·보람·진로 확신으로 전환
6	준비가 되었다고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함. 모교라 마음이 놓이지만 은사들 앞에서 부담도 느낌. 도서관 학생들을 만나는 일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 배우겠다는 마음가짐.	사서교사의 영향력을 직접 확인하며 동기부여를 얻음. 협력수업 미비 등 아쉬움도 있었으나 상담·생활지도라는 새 관심사가 생겼고, 교직을 계속 꿈꿔도 괜찮겠다고 느낌.	부담·자신감 부족에서 교직으로의 동기부여·진로 지속 의지로 전환
7	부족한 전공 과목이 있어 걱정되지만 좋아하는 도서관에서 학생들을 만난다는 설렘과 뿌듯함이 공존. 현장에서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자 함.	도서관 공간 구성, 협력수업, 행사 기획 등을 직접 경험. 못할 것 같던 일도 해내면 된다는 자신감을 얻고, 수업 운영의 기준 필요성 등 실질적 깨달음을 얻음.	걱정·설렘 사이에서 자신감·성장 체감으로 전환
8	3학년이 되어 실습을 간다는 것이 믿기지 않고 벌써 떨림.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되면서도 학교 현장에서 배울 기대도 공존.	4주가 너무 짧게 느껴질 만큼 몰입. 수업·상호작용이 즐겁고 반별 맞춤 수업의 필요성을 깨달음. 미래 교직생활에 대한 확신을 얻음.	떨림·걱정·기대에서 즐거움·확신으로 전환
9	교생실습은 로망이었으나 막상 다가오자 기대·설렘과 함께 걱정·불안도 큼. 타 교과로 나가지만 학교도서관도 경험해 보고 싶어 함.	예상대로 힘들고 어려웠으나 동시에 매우 즐겁고 의미 있는 경험. 현직 교사를 존경하게 되었고 교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함.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즐겁고 의미 있던 4주.	두려움·회피 우세에서 존경·즐거움·다짐으로 반전
10	막연히 멋있어 보이던 교생의 자리에 자신이 선다는 것에 떨림과 걱정이 있으나, 초등학교의 활동적 수업과 성장에 대한 기대도 있음.	관계 형성 걱정이 무색하게 헤어짐이 걱정될 정도로 즐거움. DLS·행사 등 실무를 다양하게 경험했고, 수업에서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로 즐거움을 느낀. 좋은 교사가 되겠다고 다짐.	떨림·걱정에서 즐거움·진로의 다짐으로 전환
11	모교로 실습을 가게 되어 기대되면서도 후배들의 기대감이 부담. 사서교사에 대해 아직 잘 모른다는 걱정이 앞서며, 꾸준히 수업을 준비하겠다고 다짐.	수업에서 학생 통솔·교사의 자세가 중요함을 깨닫고 동료 교사와의 유대감도 경험. 끝나고 나니 더 해볼 것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남을 만큼 애착이 생겼고, 학교에서 만난 사람들 덕분에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	걱정·긴장에서 애착·결심으로 전환(아쉬움이 오히려 애정의 지표로 나타남)

	교육실습 전	교육실습 후	정서 표현의 변화
12	실습 학교 섭외 과정부터 우여곡절이 많아 설렘보다 걱정이 앞섬. 수업 역량에 대한 걱정이 크지만 은사와의 재회에 약간의 설렘도 있음.	이론과 현장의 차이를 체감하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스트레스도 받았으나, 그래서 더 많이 배웠다고 평가. 교사가 힘든 직업임을 느꼈지만 교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은 더 확고해짐.	걱정 우세에서 힘듦을 겪으면서도 확신 강화 (부정 경험의 배움으로 재해석됨)
13	초등학교 실습을 앞두고 설렘 가득. 수업 부담보다 빨리 가고 싶다는 마음이 크며, '사서교사가 되어야겠다'는 확신을 얻어오겠다는 목표를 세움.	초등학생들의 반응이 좋아 즐겁게 수업함. 다양한 실무와 행사 지원을 경험하며 학생 교류의 중요성을 깨닫고, 한 달이 짧다고 느낄 만큼 만족스러웠음.	설렘 우세에서 즐거움·뿌듯함 유지 (긍정 정서가 지속·심화)
14	교생 선생님을 겪어본 적이 없어 로망과 함께 불안이 큼. 기대보다 불안이 더 크고, 가르치는 것에 대한 부담과 걱정이 있으나 독서 프로그램 진행에는 설레는 마음도 있음.	겉먹었던 것이 무색하게 잘 해내서 다행. 짧은 교류에도 담당 반 학생들에게 정이 들어 아쉬움과 속상함도 느낀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와 함께 '사서교사가 되어 다시 만나고 싶다'는 바람이 생김.	불안이 우세한 가운데 안도·정·감사로 전환 (아쉬움은 애착의 표현)
15	과거 교생을 몇진 어른으로 보았으나 지금의 자신은 부족하다고 느낌. 수업 진행·전공 활용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배우겠다는 의지를 보임.	교사의 문턱에 다가섰음을 실감. 사서교사 업무가 벅찰 정도로 많다는 현실도 인식했으나, 교과 연계수업 준비 등을 통해 많은 배움을 얻고 감사와 다짐으로 마무리.	걱정에서 감사·다짐으로 전환
16	통근 걱정. 학생들에게 휘둘리거나 상처를 주고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으나, 학생들을 만난다는 기대와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음.	거절 끝에 얻은 실습 기회에 감사하며 임함. 친절한 선생님들과 사랑스러운 학생들을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선생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다짐을 확고히 함.	걱정·두려움에서 행복·감사·확고한 다짐으로 전환
17	'내가 교생을 나가요 되나' 하는 불안과 수업 걱정이 있지만, 꿈꿔온 일이라 자랑하고 싶은 설렘도 함께 있음. 재미있는 수업을 기획하고자 함.	교직이 적성에 맞음을 깨달음. 아이들과의 일상이 즐겁고 행복했으며, 수업·상담·행정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음. 헤어짐이 아쉬울 만큼 정이 들었고 교사라는 꿈에 확신을 더함.	불안·설렘의 혼재에서 행복·적성 확인·확신으로 전환
18	설렘 반 걱정 반.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수업할지' 막막함이 공존. 선배들의 위로도 실감이 나지 않아 걱정이 반복됨.	행사 기획 성공으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고, 수업 중 돌발상황 대처로 임기응변도 배움. 학급 지도의 뿌듯함과 좋은 동료·지도교사를 만나 행복한 5월을 보냄.	설렘·걱정이 섞였으나 뿌듯함·행복으로 전환
19	준비가 덜 된 것 같아 걱정되지만 기대도 됨. 사서교사의 실제 역할·운영 현황에 대한 궁금증이 많고, 학생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싶어함.	떨림·막연한 두려움이 컸으나 다녀온 후 교사라는 꿈에 확신을 갖게 됨. 학생들이 먼저 다가와 줘 빨리 친해졌고, 이론을 현장에서 체험하며 많이 배움. 실습 경험을 임용 준비의 원동력으로 삼기로 함.	걱정·두려움에서 확신·고마움으로 전환

〈표 11〉 정서 표현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소감문 분석 결과

	정서 표현의 변화 양상	
	2024년 소감문	2025년 소감문
1	걱정이 증가하였으나 설렘·사랑·확고한 다짐으로 전환	떨림 → 뿌듯함·유익함으로 전환
2	떨림·신기함에서 뿌듯함·확신으로 전환	두려움·막막함 우세 → 자신감·보람으로 전환 ("두려움이 소중한 배움으로")
3	기대가 우세였으며 감동·열망 강화 (긍정 정서 심화)	불안 증가 → 확신·보람으로 전환 (고민이 무색해질 만큼 해소)
4	걱정 우세에서 신남·에너지로 전환	막연한 기대·걱정 → 기대 이상의 행복·확신으로 전환

	정서 표현의 변화 양상	
	2024년 소감문	2025년 소감문
5	불안·유보에서 부분적 보람과 함께 진로 고민 지속 (정서적 결론 유보)	기대·불안 혼재 → 실망·불쾌 경험 부각,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수렴
6	무기력·두려움을 극복하고 행복 회복·원동력 발견 (정서적 회복이 두드러진 사례)	걱정 우세(불면) → 벅찬 행복으로 극적 전환
7	걱정·설렘의 혼재가 수업의 즐거움을 발견, 교직에 확신을 강화	걱정·회의(진로 의문) → 진로 확신으로 전환
8	두려움·부담 우세 → 보답받음·성장 의지로 전환	기대·걱정 혼재 → 열망 강화 (현실의 양면을 인식한 확신)
9	걱정·기대 혼재 → 즐거웠으나 진로 확신은 미해결 (정서는 긍정, 확신은 유보)	두려움·자신감 저하 → 확신·보람으로 전환 (현실 충격은 경험)
10	불안·자책 우세 → 방향성 발견·다짐으로 전환	무게감·성찰 → 수업의 재미·뿌듯함 + 현실적 고민 병행 (의지는 강화)
11	기대·부담 혼재 → 유익함·목표 구체화로 전환	걱정 우세 → 현실 인식(놀람·아쉬움)과 목표 구체화 공존 (정서적 결론 유보)
12	걱정 우세 → 재미·확신으로 전환 (아쉬움 잔존)	설렘·기대 우세 → 확신·뿌듯함으로 심화
13	기대 우세 → 확신·사랑으로 심화 (잔존하던 두려움 해소)	들뜸·낯섦 → 아쉬움 속 결심·확신으로 전환
14	설렘·두려움 혼재 → 보람·행복 + 진로 질문 지속 (정서는 긍정, 확신은 유보)	걱정 우세 → 재미·보람은 있으나 확신은 유보 ("싱거워도 재미는 있었기에 일단 해본다")
15	걱정 증가 → 설렘·행복·확신으로 전환	막막함·걱정 → 행복과 고통이 공존하다 부정 기억이 강화됨 (교사 의지는 유지)
16	기대·걱정 혼재 → 행복·적성 확신으로 전환 (힘듦은 있으나 애정이 압도)	걱정 우세 → 확신은 미확득이나 학생들의 사랑이 부정적 생각을 완화 (양가감정 지속)
17	중립·궁금함 → 강한 긍정(행복·진로 의지)으로 전환	설렘·긴장 → 성장감·보람 + 담담한 성취감 (정서 고양 없이 '해냈다'로 수렴)
18	무감각·회의 → 적성 발견·꿈 재정보로 전환 ("큰 영향을 준 한 달")	긴장·두려움 → 현실 충격·우려가 중심 (진로 정서 표현은 유보)
19	회의·복잡함 우세 → 최고의 행복·동기부여로 극적 전환	두려움·걱정 우세 → 교사 확신으로 전환 (현실의 씁쓸함 병행)
20	떨림·기대 혼재 → 행복·감사 + 진로 고민 지속 (정서는 긍정, 확신은 유보)	
21	위화감·겁남 → 사명감·애정으로 전환 (중간의 좌절을 학생들이 상쇄)	
22	걱정 우세 → 애정·소명의식으로 강하게 전환	
23	긴장·설렘 혼재 → 즐거움·보람 + 확신 미해결 (진지해진 계기)	
24	담담함 유지 - 정서 표현은 절제되었으나 적성 확인은 긍정적	
25	극도의 두려움 → 사명감·확신으로 극적 반전 (가장 극적인 전환 사례)	
26	걱정·불안 혼재 → 행복·적성 확신으로 전환	
27	기대·약간의 두려움 → 감동·감사로 전환	
28	확신행 출발 → 성장·보람 확인 (긍정 기조 유지, 자기성찰 동반)	
29	두려움·걱정·고민에서 교직에 확신·기대로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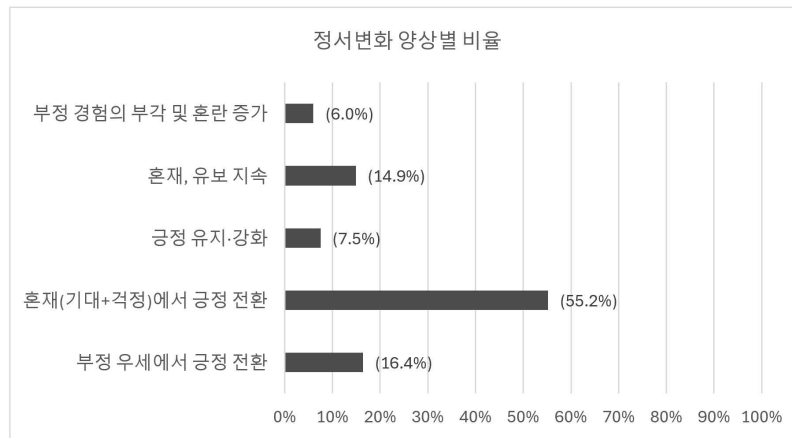
예비 사서교사들이 교육실습을 가기 전과 다녀온 후의 소감을 적은 글을 대상으로 정서 표현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정리하였다. 예비 사서교사들은 교육실습 전에 공통으로 전공 지식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불안해하고, 수업 운영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교육실습생으로 학교 현장에 갈 기대와 자신의 부족한 모습 사이에서 오는 긴장이 양가적 감정으로 혼재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5주간의 교육실습을 다녀온 후 예비 사서교사들이 느낀 긍정적 정서 변화는 전반적으로 무사히 마쳤다는 성취감에서 오는 것으로 판단

된다. 두려워하던 수업도 잘 마무리하고, 학생들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느낀 좋은 감정은 교직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실습을 전후한 예비 사서교사의 정서 표현은 긍정→ 부정 또는 부정→ 긍정과 같이 정서 표현의 방향이 바뀐 유형과 정서의 혼재(긍정과 부정)→ 특정 정서로 바뀐 유형, 그리고 정서의 변화가 없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유형 구분에 따라 정서 표현의 변화 양상에 따른 교육실습 경험을 정리하면 <표 12>와 <그림 4>와 같다.

<표 12> 정서 표현의 변화 양상에 따른 교육실습 경험 분석

정서변화 양상	부정 우세에서 긍정 전환	혼재(기대+걱정)에서 긍정 전환	긍정 유지·강화	혼재, 유보 지속	부정 경험의 부각 및 혼란 증가
비율	16.4%	55.2%	7.5%	14.9%	6%
식별자	2023-02, 2023-14, 2024-06, 2024-08, 2024-10, 2024-19, 2024-25, 2025-02, 2025-06, 2025-07, 2025-19	2023-01, 2023-03, 2023-04, 2023-05, 2023-06, 2023-07, 2023-08, 2023-09, 2023-10, 2023-11, 2023-12, 2023-15, 2023-16, 2023-17, 2023-18, 2023-19, 2024-01, 2024-02, 2024-04, 2024-07, 2024-11, 2024-12, 2024-15, 2024-16, 2024-17, 2024-18, 2024-21, 2024-22, 2024-26, 2024-27, 2025-01, 2025-03, 2025-04, 2025-08, 2025-09, 2025-10, 2025-13	2023-13, 2024-03, 2024-13, 2024-28, 2025-12	2024-05, 2024-09, 2024-14, 2024-20, 2024-23, 2024-24, 2025-11, 2025-14, 2025-16, 2025-17	2024-29, 2025-05, 2025-15, 2025-18
인원	11명/ 67명	37명/ 67명	5명/ 67명	10명/ 67명	4명/ 67명



〈그림 4〉 정서 표현의 변화 양상에 따른 교육실습 경험 분석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예비 사서교사들이 교육실습 전·후에 작성한 자유기술형 소감문을 토대로 교육실습 경험이 이들의 교직 인식과 정서 변화에 끼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교육실습을 다녀온 A대학교 예비 사서교사의 실습 전 소감문 79건과 실습 후 소감문 70건을 수집하고,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으로 집단 수준의 인식 구조 변화를, 동일인의 전·후 대응쌍 67건에 대한 질적 분석으로 개인 수준의 정서 표현 변화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 분석 결과 교육실습 전 소감문에서는 ‘교사’, ‘학생’, ‘현장실습’, ‘생각’ 등과 함께 ‘걱정’, ‘기대’ 등 정서적 반응과 관련된 단어가 상위에 나타나 예비 사서교사들이 실습을 막연한 기대와 불안 속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실습 후에는 ‘학생’, ‘교사’, ‘수업’, ‘학교도서관’

관’, ‘교육’, ‘활동’ 등 학교 현장에서 경험한 구체적인 실천 경험에 기반한 단어들이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실습 전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교사’가 실습 후 ‘학생’으로 바뀐 점은 예비 사서교사의 관점이 ‘자신의 역할’에서 ‘학생과의 관계’로 확장되었음을 시사한다. 둘째, 중심성 분석 결과 실습 후 ‘수업’의 연결 강도와 매개 기능이 크게 높아져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였고, ‘학생’의 매개 중심성이 두 배 이상 상승하여 개념들을 연결하는 중심 역할이 강화되었다. 또한 실습 전 중심성 상위 단어에 없던 ‘학교도서관’이 새롭게 진입한 반면, ‘걱정’은 하락하고 ‘기대’는 상위 단어에서 사라졌다. 이는 실습을 통해 예비 사서교사들이 ‘학생’과 ‘수업’을 중심으로 교사의 역할을 재인식하고, 학교도서관에 대한 실제 경험이 인식 구조에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대응쌍 67건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 교육실습 전에는 전공 지식에 대한 전문성 부족의 불안감과 수업 운영에 대한 두려움이 기대감과 혼재된 양가적 정서가 지배적

이었으나, 실습 후에는 교직에 대한 확신, 동기 부여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서가 전환된 예비 사서교사가 79.1%(53명)에 이르렀다. 특히 부정 정서가 우세한 상태에서 긍정으로 전환된 경우가 16.4%(11명)였으며, 긍정에서 부정으로 전환된 사례는 없었다. 다만 부정 경험이 부각되거나 혼란이 증가한 경우도 6.0%(4명)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교육실습이 예비 사서교사에 게 막연한 불안과 기대를 구체적인 교직 인식과 확신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해석은 단어 빈도, 동시출현, 중심성, 그리고 대응쌍 질적 분석이 서로 다른 분석 단위에서 일관되게 같은 방향의 변화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뒷받침된다. 실습 전 소감문에서 나타난 양가적 정서는 실습을 앞둔 예비교사들이 실습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두려움·걱정을 동시에 보인다는 선행연구(정혜영, 김미진, 2015)와 일치하며, 두려워하던 수업을 지도교사의 피드백과 동료의 지지 속에서 완수하고 학생들과 정서적 유대를 형성한 경험은 교직에 대한 확신과 임용 준비의 동기로 이어졌다. 이는 교육실습이 사서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권선영, 박장순, 2014; 김성준, 2011a)와 맥을 같이

하면서, 그 변화가 실습 전후의 비교를 통해 정서 구조의 수준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실습 전 예비 사서교사들의 불안이 수업 운영과 전공 전문성 부족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양성과정에서 수업 시연과 모의수업 등 사전 교육을 강화하여 실습 전 불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감문 분석에서 부정 정서가 긍정으로 전환되는 계기로 지도교사의 피드백과 정서적 지지가 반복적으로 확인된 만큼, 실습협력 학교 지도교사의 역할을 체계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소수이지만 실습 후 오히려 혼란이 증가한 사례가 확인된 만큼, 실습 후 성찰과 진로 상담을 연계한 사후 지도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단일 대학의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자기보고 형식의 소감문 자료에 기반하였다는 점에서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복수의 양성기관을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 그리고 교육실습에서 형성된 교직 인식이 이후 임용 준비와 진로 결정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추적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봉숙, 박주현 (2019). 개정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 이후 사서교사 배치 및 양성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3), 239-259. <http://doi.org/10.16981/kliss.50.3.201909.239>
- 곽기영 (2019). 소셜네트워크분석 (제2판). 서울: 청람.

- 교육부 (2026). 2026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세종: 교육부.
- 국립공주대학교 (발행년불명). 교육실습.
- 출처: <https://sabum.kongju.ac.kr/ZA0000/1242/subview.do>
- 권선영, 박장순 (2014). 예비사서교사의 교육실습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3), 321-348. <http://doi.org/10.16981/kliss.45.3.201409.321>
- 김성준 (2011a). 사서교사 교육실습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183-203. <http://doi.org/10.16981/kliss.42.1.201103.183>
- 김성준 (2011b). 예비사서교사의 교육실습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2), 193-213. <http://doi.org/10.16981/kliss.42.2.201106.193>
- 김훈희, 권충훈 (2018). 언어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활용한 국내 '예비교사 교육' 연구동향 분석. 인문사회 21, 9(4), 1161-1176. <http://doi.org/10.22143/HSS21.9.4.81>
- 도서관법. 법률 제21090호.
- 엄미리, 엄준용 (2009). 교육실습 전·후 예비교사의 역량변화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6(3), 491-508. <http://doi.org/10.24211/tjkte.2009.26.3.491>
- 이수상 (2014).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서울: 논형.
- 이승민 (2020). 저경력 사서교사의 도서관활용수업에 대한 실천적 지식 형성 과정 탐색.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4), 1-24. <http://doi.org/10.16981/kliss.51.4.202012.1>
- 임정훈, 강봉숙, 박주현, 한상우 (2023). 예비 사서교사의 교육실습에 대한 인식 조사: 심층 면담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4), 75-95. <http://doi.org/10.4275/KSLIS.2023.57.4.075>
- 임정훈, 소병문 (2023). 저경력 사서교사의 전문성 영역에 대한 교육적 요구도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4(1), 167-188. <http://doi.org/10.14699/kbiblia.2023.34.1.167>
- 정혜영, 김미진 (2015). 은유 분석을 통해 본 실습 전 예비유아교사의 실습 전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인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3), 25-44.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21659호.
- 학교도서관진흥법. 법률 제18547호.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No. 21659.

Eom, Mi-Ri & Uhm, Joon-Yong (2009). A survey on change of competency for pre-service teachers before and after teaching practicum.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 26(3), 491-508. <http://doi.org/10.24211/tjkte.2009.26.3.491>
- Jung, Hye-Young & Kim, Mi-Jin (2015). Perception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before practicum on teaching practicum through metaphor analysi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11(3), 25-44.
- Kang, Bong-Suk & Park, Ju-Hyeon (2019). A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teacher librarians' placement after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School Libraries Promotion Ac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3), 239-259. <http://doi.org/10.16981/kliss.50.3.201909.239>
- Kim, Hun-Hee & Kwon, Choong-Hoon (2018). Research trends of 'preliminary teacher education'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method.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9(4), 1161-1176. <http://doi.org/10.22143/HSS21.9.4.81>
- Kim, Sung-Jun (2011a). A study on the analysis of variables affecting teacher librarians' practice teaching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1), 183-203. <http://doi.org/10.16981/kliss.42.1.201103.183>
- Kim, Sung-Jun (2011b).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eacher librarians' teaching practice program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2), 193-213. <http://doi.org/10.16981/kliss.42.2.201106.193>
- Kongju National University (n.d.). Teaching practicum. Available: <https://sabum.kongju.ac.kr/ZA0000/1242/subview.do>
- Kwak, Kee-Young (2019). *Social Network Analysis* (2nd ed.). Seoul: Chungnam.
- Kwon, Sun-Young & Park, Jang-Soon (2014). A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pre-service teacher librarian during student teaching practi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3), 321-348. <http://doi.org/10.16981/kliss.45.3.201409.321>
- Lee, Seung-Min (2020). A study on the practical knowledge of low-experienced teacher librarian in library based instruc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4), 1-24. <http://doi.org/10.16981/kliss.51.4.202012.1>
- Lee, Soo-Sang (2014). *Network Analysis Methods*. Seoul: Nonhyung.
- Library Act. No. 21090.
- Lim, Jeong-Hoon & So, Byoung-Moon (2023).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educational needs of low-experienced teacher librarians' instructional expertis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4(1), 167-188. <http://doi.org/10.14699/kbiblia.2023.34.1.167>
- Lim, Jeong-Hoon, Kang, Bong-Suk, Park, Ju-Hyeon, & Han, Sang-Woo (2023). Perception on

the education practicum of pre-service school librarian teachers: focusing on the analysis of in-depth interview dat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7(4), 75-95. <http://doi.org/10.4275/KSLIS.2023.57.4.075>

Ministry of Education (2026). 2026 Teacher Certification Examination Operating Manual.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School Libraries Promotion Act. No. 18547.

